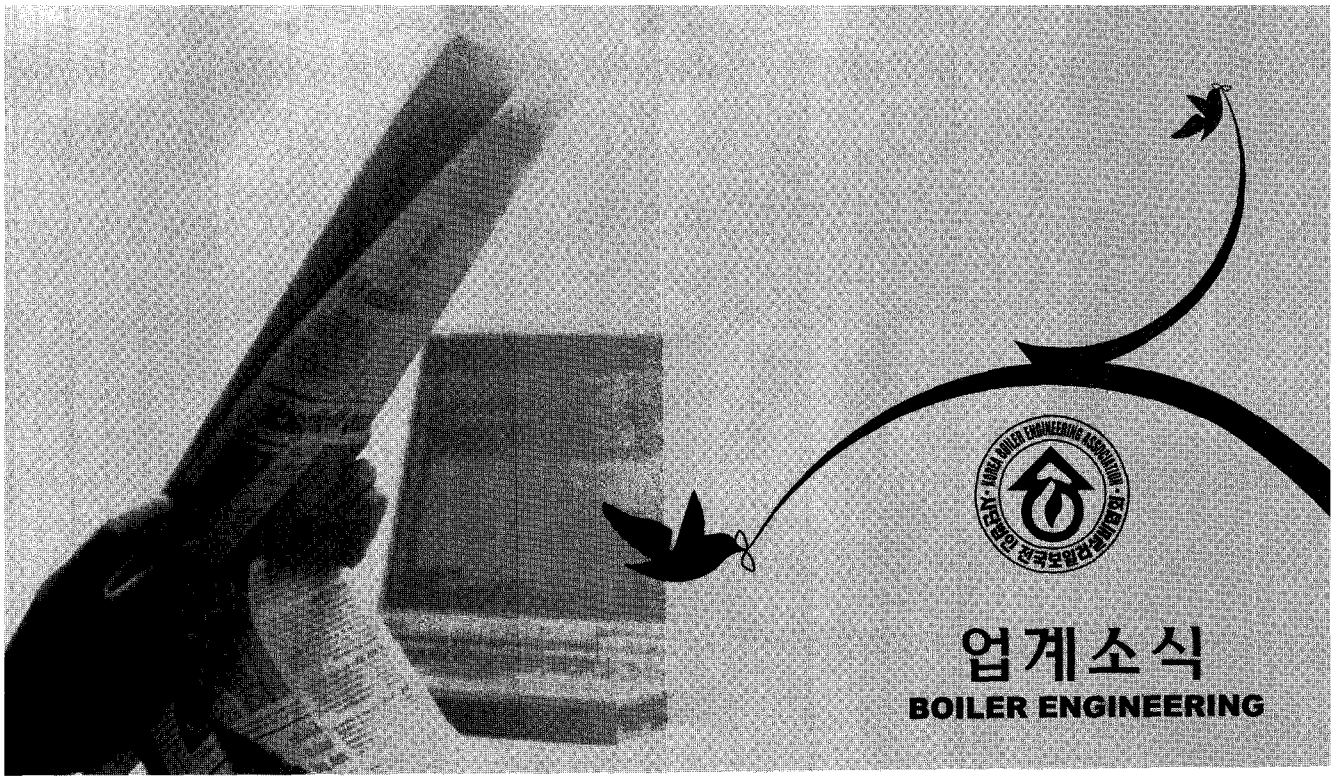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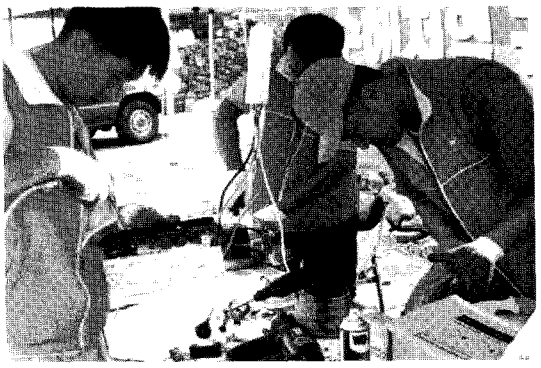


귀뚜라미, 수해 현장에서 복구 '구슬땀'

"고객감동 서비스와 나눔경영 실천 의지



▲ 귀뚜라미 수해 복구팀이 침수된 가스기기를 거둬들여 수리하고 있다.

귀뚜라미(대표 박명현)는 태풍 '덴무'와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귀뚜라미는 피해가 심각한 김포시 고촌읍 일대의 침수된 주택 70여 채에 대해 인근 대리점과 본사 서비스 인원이 함께 수해 복구팀을 구성한 후 수재민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대구, 익산 등의 수해 지역은 해당 지사가 주관해 수재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해당 대리점과 협력해 수해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매년 수해 지역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재해 복구 활동을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감동 서비스를 통해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귀뚜라미의 고객 감동 서비스는 수해복구 이외에도 소비자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방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무상점검, 제품문의, AS요청 등으로 서비스 요원이 고객의 가정에 방문할 때 가정에너지의 5% 이상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시행해 서비스 활동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올해도 Well-Being 보일러는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7년 연속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위 수상

가스보일러 기업 경동나비엔(대표 김철병)이 '2010 한국소비자웰빙지수' 가정용 보일러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경동나비엔 'Multi & Rich on水 나비엔 콘덴싱 가스보일러(이하 나비엔

◀ 경동나비엔 이정안 상무(사진 왼쪽)가 한국소비자웰빙지수 가정용 보일러 부문 1위 인증패를 수여받고 있다.

린나이 본사 · 대리점협의회 수해복구 '구슬땀'

전북지역 급파 가스기기 수리 및 구호활동

▲ 린나이코리아 수해복구팀원들이 침수된 가스레인지를 수리하고 있다. 뒤쪽에서 빨래건조기로 수재민의 빨래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원석)는 지난 16일 2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익산시 등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수재민 구호활동을 펼쳤다.

린나이코리아 본사와 린나이 전국 대리점협의회 직원 40여 명으로 구성한 수해복구팀은 침수 가옥 200여 채를 찾아 수재민의 기본적인 취사와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스레인지와 가스보일러 등을 무상으로 수리했다. 아울러 주민 편의를 위해 린나이코리아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가스제품까지도 점검을 펼쳤으며 린나이 가스빨래건조기를 운영해 하루에 약 400kg의 옷과 이불을 말려 주는 등 수재민을 위한 구호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매해 수해지역에 대해 무상 A/S 점검을 해오고 있다"며 "피해 상황에 따라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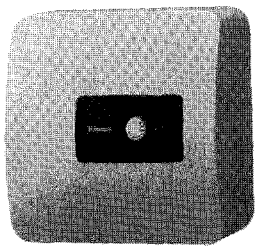
콘덴싱on水)'는 5차례 이상 1위 인증을 받은 상품 가운데서 선정되는 '황금나비상'을 작년에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변함없이 '1등 보일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04년도에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가 생긴 이래 올해까지 7회째를 맞는 동안 경동나비엔은 한번도 빼놓지 않고 가정용 보일러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김철병 대표는 "소비자웰빙지수 7년 연속 1위 수상은 고효율,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경동나비엔의 노력이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최첨단 콘덴싱 기술을 실현함과 동시에 철저히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더 완벽한 고객 만족을 이뤄갈 것"이라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전 최우선 '전기온수기' 3종 출시

린나이, 누전차단기는 기본 · 친환경도 기본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원석)는 누전차단기를 기본 장착해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기온수기(모델명: REW-T15, 30, 50)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린나이 전기온수기는 "누전차단기"가 달려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며, 3중 안전장치(자동온도조절장치, 과압안전밸브, 과열방지장치)를 채택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저탕식으로 풍부한 온수가 내장되어 있으며, 마그네슘 양극봉의 전해 작용으로 항상 깨끗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벽걸이 형으로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기 증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수 보온재(폴리우레탄)를 사용해 열 손실이 거의 없어 경제적이며, 온실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염화불화탄화수소(HCFC) 등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아연 도금과 2중 에나멜 코팅으로 온수탱크 내부의 부식을 차단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전기온수기는 누전차단기를 기본 장착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15ℓ, 30ℓ, 50ℓ의 다양한 온수 용량 제품이 있어 사무실과 원룸,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근린시설 등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보일러업계, 전기온수기 도입 왜?

구색사업 품목 확대 차원…속내는 아닌 듯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개방형 가스온수기에 대한 생산금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보일러업계가 가스온수기와 경쟁기종인 전기온수기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린나이코리아는 최근 누전차단기를 기본 장착해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기온수기(모델명: REW-T15, 30, 50) 3종을 출시했으며 경동나비엔은 중국의 전기전자 및 냉동공조기업인 미디어사와 전기온수기 도입을 위한 OEM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전문기업들이 경쟁기종인 전기온수기를 도입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은 가운데 보일러업계는 구색사업 품목 확대를 위해 전기온수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속내는 따로 있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스안전공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개방형 가스온수기에 대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산금지라는 극약처방을 준비하고 있어 가스온수기를 대체하기 위해 전기온수기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재 가스온수기시장이 연간 약 9만대수준인데 생산금지가 이뤄진다면 그 시장이 전기온수기시장으로 일정부분 옮겨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보일러라도 용도 따라 세제혜택 달라"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서 신규투자분은 제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해당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일러 한 대를 두고 사용 용도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고효율 보일러를 두고 기존 시설의 개체에 사용하는 것과 신규투자분을 나눠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고려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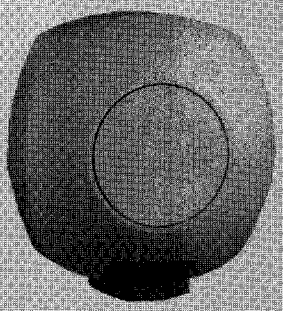
그는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에너지 발생이나 공급시설 중 보일러, 요로, 집단에너지시설 등은 '기존 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한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반면 신규투자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가스안전공사는 개방형 가스온수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밀폐형 가스온수기 개발을 관련업계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온수기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온수기가 개발되더라도 온수기 배기통과 설치비가 추가비용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어 초기투자비가 그 만큼 올라가게 돼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설치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다보니 가스온수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온수기 도입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가스를 열원으로 한 사용기기를 생산금지한다면 그만큼 경쟁열원인 전기로 수요가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한 기업이 독점하다시피한 시장이 개방된다면 솔직히 경쟁사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크다고 해서 가스열원기기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인지 궁금하다"라며 "가스안전사고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데서 발단이 됐다. 업계는 이 법 조항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세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2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액공제 대상설비는 보일러와 요·로, 집단에너지시설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과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고효율인증기자재, 전력수요관리설비 등이며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 가운데 보일러와 요·로, 집단에너지시설의 경우 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낙후된 시설물을 교체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이 높아질 경우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다"면서 "고효율 제품의 사용이 의무화되는 시점에서 신규투자분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목재펠릿 · 보일러 보급사업 윤곽

보일러 제조업체 육성 · 공공 보급 중점

산림청이 2011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밑그림을 공개했다.

목재펠릿 수요창출을 위한 보일러 지원에 1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산림청은 2011년 목재펠릿 관련 전체 예산은 총 2460억원이며, 이 중 보일러에 132억원, 목재펠릿 제조설비에 73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목재펠릿' 제조에서 '보일러' 제조업체 육성으로, 가정용 소형 보일러에서 공공기관·복지시설용 중·대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일반 가정보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현실을 외면한 단기처방'이라는 반응이다.

△가정용 보일러 3500대 보급 - 최근 여주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에서 열린 한국펠릿연료협회(회장 한규성, 충북대 교수) 정기총회에서 산림청 진선필 과장은 "당초 내년 목재 펠릿보일러 1만대 보급을 목표로 했으나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 접수를 집계한 결과 예상치에 훨씬 못미쳤다"면서 "가정용 보일러 3500대 보급으로 목표를 수정했으며, 가격은 올해보다 10만원 낮아진 370만원선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용 펠릿보일러는 3000대가 보급됐으며, 올해 보급 목표는 4000대다. 이처럼 가정용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더 큰 규모의 보일러 보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일반시설에 50kW급, 노인병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200kW급 보일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 가정 위주로 보급해 오던 것을 공공기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목제펠릿보다 '보일러' - 목재펠릿 제조설비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목재펠릿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는 2, 3개 업체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수요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산림청은 2011년에 8개 제조설비 지원에 총 73억원을 책정했었다.

목재펠릿 가격 역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현재 톤당 35~40만원 수준인 가격을 20만원대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목재펠릿 판매·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연탄, 무연탄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본격화 -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에 2011년부터 3년간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목재펠릿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다. 산림청은 2014년까지 11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또 목재펠릿 보일러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경부와 설비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량 펠릿보일러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한다. 펠릿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A/S반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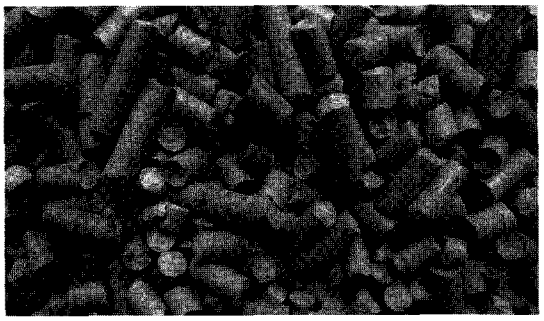
△업계 "정부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한편, 이 같은 산림청의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 관련 업계는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목재 펠릿 보일러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보일러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 가격으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솔직히 올해 사업에서 소비자 부담을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가격경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추면 부실 제품을 양산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정용 보일러가 저가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실제품과 부실 A/S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고, 노인가구의 경우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가정용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산업용으로 대형제품으로 가는 추세는 바람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펠릿 제조업계의 불만은 훨씬 크다. 산림청이 목재펠릿 위주의 정책을 집행한 결과 펠릿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빚어진데다 가격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목재펠릿 제조업체 임원은 "양질의 펠릿을 생산하라면서 현실을 외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는데

옛날 어른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두 가지가 있었다. 논에 물 대는 것과 자식 입으로 밥 들어가는 장면이 그것이다.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 농사 잘 되고 자식 굶기지 않는 것 이상의 절대적 가치는 없었던 것이다. 자식 키우는 일은 자연스레 '자식 농사'가 되어 '제일 큰 농사' 대접을 받았다. 인간의 손길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수작업인 농사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고귀한….

그런데 후대 어느 때부터 '큰 농사'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법칙을 잊어버렸다.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위대한 진리도 망각했다. 사랑과 정성을 쏟는 과정보다 수확량이라는 결과에 급급해 땅을 닦달했다. 성장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체질에 맞지 않는 비료를 무차별 투하하고 못생기고 맛이 없다며 작물의 유전자를 바꾸는 무서운 실험도 했다.

며칠 전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자살 사건의 주인공이 '잘못된 농법'의 대표적 피해자다. 한 외고생이 베란다에서 투신하면서 엄마에게 '이제 됐어?'라는 단 네 글자로 된 충격적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당신이 요구한 성적에 도달했으니 만족하느냐는 냉소적이면서 슬픈 의문부호는 역설적으로 어떤 공포와 고독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뉘앙스마저 풍긴다. 엄마는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성적이라는 허깨비 장난에 놀아난 결과를 보였으니…. 자식 농사를 노후설계(?) 쯤으로 착각이라도 했단 말인가.

이쯤 되고 보니 인터넷에는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 4가지 조건'이라는 망령된 이야기까지 화제가 된다. 할아버지의 재력, 어머니의 열성, 아버지의 무관심, 형제들의 희생이 필수 사항이란다. 특히 아버지의 무관심이 중요하다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아빠가 쉬어가며 공부하라고 참견이라도 하면 엄마로부터 단단히 교육받은 아이가 헷갈려하기 때문이란다. 마마보이가 돼야 명문대에 갈 확률이 높다는 '믿기 싫은' 아니 '듣기 싫은' 소리다.

현실이 그러니 어쩌겠느냐는 말은 잠시 멈추자.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직도 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일단 쉬어가자. 그리고 한 번 뒤돌아보자. 크게 자라긴 했어도 허우대만 껑충한 작물은 아닌지, 생각 없이 무성한 가지와 잎이 옆 작물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흙만 건강하면 곡식은 알아서 큰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농사 중의 농사, 이제부터라도 올곧게, 제대로 짓자.

답답한 전기요금 개편작업

당위성 불구 지루한 논의만… 정부 "개편하겠다" 계획만 되풀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기요금 개편작업은 그 당위성과 오랜 시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기요금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전기요금 문제 자체가 단순한 요금인상으로 해결되기 힘들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단순한 요금 인상은 사회적 부담만 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논의만 있었지 하나도 진척된 것은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전기요금 개편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압별 요금체계'와 '전기요금 연동제'가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전압별 요금체계는 현재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과 같이 용도별로 나눠져 있는 요금 체계를 저압과 고압 등 전압별로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용도별 요금체계는 산업용에 대해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용 등에 원가 이상의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교차보조'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같은 왜곡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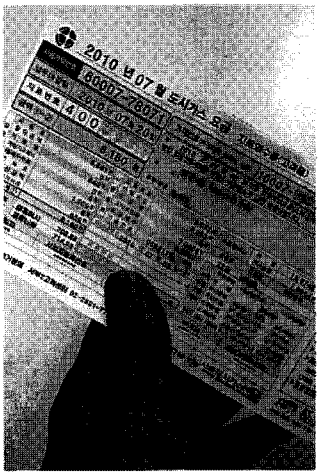
하지만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단시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개선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개편을 언급하고만 있다.

전기요금 연동제 역시 실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앞서 사전 준비단계로 모의시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의시행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이 정도의 준비작업으로 내년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전기요금 연동제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가스요금 연동제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연동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연동제에 대한 여론 형성이 안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동제 역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된 지 오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정부가 이와 관련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대중 속으로~

에관공,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다양한 절약메시지

에너지관리공단이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에관공의 홍보활동은 캠페인과 광고, 기획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에서도 적정실내온도 준수에 대한 기획프로그램과 그린스포츠에 대한 인기연예인들의 메시지 전달 등이 시청자에게 높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방영된 KBS수요기획 '내 몸이 원하는 쾌적온도의 비밀'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자'는 다소 상투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적정실내온도가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다.

에관공 관계자는 "단순히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정온도를 지키자고 하는 것보다 지키면 뭐가 좋은지를 알려주자는 쪽으로 메시지 전달 통로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과냉방으로 인해 인간의 피부온도가 50년 전보다 약 1도 정도 내려갔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지나친 과냉방이 비염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지식을 전달했다.

프로그램에서는 또한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자연스레 땀을 흘릴 수 있는 온도로 아토피를 완화시킨다든가 숙면을 위해서도, 집중력을 위해서도 26도가 적절한 온도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절약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적정실내온도 준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전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하자는 기획프로그램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MBC에서는 80분짜리 특별생방송 '신재생에너지 기술 열전(신기전)'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강남훈 국장을 비롯해 개그맨 오정태 전환규 최국 이국주 등이 출연해 국내 각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상황을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기후변화대응의 수단으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다. 에관공은 특히 시민들이 여름철에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휴가', '관광지' 등의 아이템과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접목해 큰 관심을 끌어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오는 16일 에너지시민연대와 에관공이 공동주최하는 '에너지의 날-불을끄고 별을켜다' 행사도M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밤 9시부터 5분간 전국의 불을 끄고 여름철 에너지절약의 메시지를 되새기게 된다.